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제17차 직업건강 세미나' 개최

'음주와 근로자 건강' 주제로
 (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뉴스일자 : 2018-10-26 16:07:57



25일 대구비즈니스센터 6층 교육장에서 열린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제17차 직업건강 세미나'에 참석한 사업장 및 유관기관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근로자건강센터)

계명대 산학협력단 대구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이미영)는 25일 대구비즈니스센터 6층 교육장에서 사업장 및 유관기관의 안전·보건관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와 근로자 건강'을 주제로 '제17차 직업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대구근로자건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음주 그리고 마음건강(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양태 교수) ▲음주 그리고 몸건강(대구근로자건강센터 박정하 가정의학 전문의) ▲음주관련 법규와 직업건강(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남훈 전공의) ▲직장인 알코올 중독사례(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유미 센터장) ▲절주프로그램(대구근로자건강센터 정윤희 간호사) 등의 내용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음주와 근로자 건강' 세미나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TV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의 규제강화'와 '음주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영 대구근로자건강센터장은 "앞으로도 정례적인 직업건강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산업보건분야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근로자건강센터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근로자 건강증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성서산업단지내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에서 개소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소한 대구근로자건강센터 달서분소(도시철도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지하 1층)와 2017년 개소한 달성분소(달성1차산업단지)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근로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박종률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j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18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